

초등학생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이 수 림
열린사이버대학교

김 은 영
한국청소년상담원

송 미 경*
서울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대상 가출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과 선행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초등학생 6학년 대상 요구조사, 가출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는 가출에 대한 지식, 합리적인 스트레스 대처, 부모와 갈등 시 의사소통 방법, 가출 시 도움 요청하는 방법으로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를 토대로, 초등학교에서 활용성을 위해 2교시 단기교육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교구재를 개발하고, 부모교육자료 및 교사용 자료집도 함께 개발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실험집단의 가출의식 및 스트레스 대처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사후 및 추후검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 및 교사, 부모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 만족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가출 예방에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적용점,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 가출, 가출 청소년, 가출 예방,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 본 연구는 2009년도 보건복지부 및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초등학생 가출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139-774)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3, Tel : 02-970-5705, E-mail : songdouce@swu.ac.kr

Roberts(1987)는 가출청소년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이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나동석, 이용교 역, 1991, p. 37).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은 2006년 14,164명, 2007년 18,636명, 2008년 23,097명으로 증가하였으며(경찰청, 2009), 경찰에 신고 되지 않는 가출을 포함한다면 연 7만-10만 명이 가출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김향초, 2009). 또한 가출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손상시킴으로써 장애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기능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측면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정혜경, 권혜진, 2001). 따라서 청소년 가출은 단순히 청소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국가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배문조, 전귀연, 2002).

한편 청소년들의 가출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 2002년도에 13세 이하가 35%인 반면, 2007년도에는 48%, 2010년도에는 44.9%로 어린 나이에 가출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2007, 2010). 또한 쉼터거주 가출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가출한 나이는 남자가 평균 13.3세(07년 13.2세)이고 여자가 평균 13.8세(07년 14.5세)로 여학생의 경우 더욱 어려웠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0). 또한 가출 후 겪는 비행 및 범죄는 가출이전에 비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 나이의 첫 가출은 이후 재가출로 이어지면서 점차 심각한 비행청소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게 한다(김성경 1997; 한국여성개발원, 1997). 즉, 가출 후 청소년들은 부적절한 숙식, 거리생활로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좌절감, 소외감 등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청소년의 폭력, 약물남용, 윤락행위 등 비행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강성래, 2003). 따라서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후개입보다는 사전예방을 통해 가출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들의 가출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박명숙,

2006).

그러나 그동안 가출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인 개입은 예방보다는 쉼터 및 일시보호 등을 통한 사후개입에 치중하고 있었다. 또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가출예방보다는 가출의 원인 및 실태 파악과 복귀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비록 선행연구들에서 가출예방에 대한 대책들을 제안해왔으나(문성호, 2000; 엄명용, 1997), 실질적인 가출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 상당수가 첫 가출을 하게 되는 시기(13세-14세경) 이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가출예방에 개입할 수 있도록 가출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을 대상으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들도 있다. 첫째, 선행 연구들의 가출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족요인이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요인은 아동기부터 문제가 되며 초등학교 시기부터 프로그램을 통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초등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 비해 예방교육에 반감을 갖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잘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초등학생 대상 흡연, 음주 등 예방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김도애, 남영옥, 2003; 김영미, 정문희, 200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출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청소년이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가출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가출 충동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부모에게 가출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첫 가출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출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아동청소년 개인에게 필요한 예방적 요소뿐 아니라 가족인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예방적 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부모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용 교육 자료를 포함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가 청소년의 가출충동 및 가출을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교사용 자료도 개발

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가출 현황 및 실태

경찰청의 신고건수 외에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가출 현황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13.8%, 여학생의 9.4%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백혜정, 방은령, 2009), 일반학생 조사결과 전체의 13.7%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나타나(여성가족부, 2010) 전체 학생의 10% 이상이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김향초(2009)는 연중 7만 명을 추정하였고 윤철경 외(2005)는 청소년 인구와 가출발생률을 고려하여 가출 위기 청소년으로 약 10만 명의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출 연령도 점차 낮아졌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출을 시도하기 때문에 사춘기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가출 연령도 낮아지는 것으로, 자아정체감의 혼란과 자기중심적 사고가 특징인 초기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김향초, 2009).

가출청소년의 실태조사 결과, 가출청소년들이 반복, 장기가출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출 이후 숙식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고 또한 비행을 하거나 비행의 대상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즉, 2010년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청소년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총 가출 횟수는 남자 평균 9.5회, 여자 평균 5.9회로 6회 이상의 재가출을 나타내었다. 이는 2004년도 및 200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6번 이상의 재가출 청소년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출 기간에 대해서는 남자 평균 161.1일, 여자 평균 182.3일이었으며, 약 27.2%가 6개월 이상의 장기 가출자로 가출의 반복성과 장기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조사 결과에서 6개월 이상이 18.6%인 것에 비해 가출이 더욱 장기화됨을 알 수 있다.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도 평균 가출 횟수는 2.6회, 가출 기간은 첫 가출이 11일, 가장 오래한 가출이 23.5일로 나타나 가출의 심각성은 위기청소년만의 문

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

또한 폭행, 갈취, 유흥업소 취업, 이성과 혼숙 및 성관계, 음주, 흡연, 약물복용, 음란매체 접촉, 성매매 등 각종 비행관련 행동이 가출 전후 비교에 있어서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가출이 비행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청소년은 가출 후 '무작정 떠돌아 다녔다'(40.4%), '흡연'(31.9%), '음주'(26.3%) 등의 경험들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기청소년은 '흡연'(78.2%), '음주'(65.9%), '돈 뺏기'(52.8%), '물건 훔치기'(50.9%)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 백혜정과 방은령(2009)의 조사결과에서는 가출 횟수가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가출 이전 가족 형태를 살펴보면, 편부모(34.5%), 재혼가정(15.9%), 친척·형제(15.6%), 시설위탁부모(5.6%) 등 71.6%가 해체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이유를 조사한 결과 부모와의 불화, 부모의 폭행,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 가족 요인이 59.8%로 가장 높았고,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21.3%로 두 번째로 높은 요인으로 나타나 가족문제가 가출의 가장 큰 원인임을 보여주었다(한국쉼터협의회, 2010). 백혜정과 방은령(2009)의 조사에서도 쉼터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으로 '부모님이 싫어서(6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61.2%)', '친구와 놀고 싶어서(59%)'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도 가출 충동의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모님이 싫어서(34%)'이며, '부모님이 나에게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는 이유(30.9%)가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공부가 부담되어서(30.1%)',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28.1%)'와 '친구와 놀고 싶어서(23.4%)'가 그 뒤를 이었다(백혜정, 방은령, 2009). 백혜정과 방은령(2009)의 조사결과 분석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방임의 정도가 높고, 가족의 지지가 낮을수록 가족구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가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며, 가출의 유형도 만성 및 장기와 같이 보다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백혜정, 방은령, 2009)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예방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Matchinda(1999)에 따르면, 부모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 안정적이지 못한 가족 구조, 부모의 권위적 양육 방식, 가출청소년과의 친구관계, 충동성의 5가지 요인이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명숙, 2006). 한편, 정혜경과 권혜진(2001)은 가출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개인요인으로는 반사회적 성격 성향이 있으며 과거 성경험과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 가족요인에서는 결손가정이거나 형제중 가출한 경험이 있거나 모의 과보호 또는 방임이 있는 경우, 학교 및 또래 요인에서는 이성친구가 있고, 성격이 나쁜 경우가 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제안되었듯이 가출요인들을 가족요인, 개인요인, 학교 및 친구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가족요인이 가장 큰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 및 결손, 양육형태와 의사소통 양상,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혹은 방임 등으로 인해 가족의 유대감이 약해짐에 따라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가정을 이탈하여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김경희, 김지수, 2007; 김향초, 2002; 엄명용, 1997; Slesnick, Vasquez, & Bittinger, 2002). 가출을 야기하는 가족요인은 가족의 구조적 결함 또는 부모의 정서적 긴장상태, 부정적인 태도 및 양육의 비밀관성, 가족의 응집력 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의 통제기능 약화를 일컫는 것이다(김중선, 2002; 박영호, 김태익, 2002).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학대로 인하여, 청소년은 심리적 손상을 입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면 심한 경우 비행, 가출 등의 일탈적 행동을 하게 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둘째, 개인심리적 요인이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 가출과 관련된 개인요인으로는 낮은 자아개념, 강한 충

동성, 우울 경향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성격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스트레스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응자원이 결핍되어 있어 합리적인 문제해결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고 회피적, 충동적 문제해결 경향이 가출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본용, 2002; 박명숙, 2006; 이종화, 김경희, 김희영, 정혜경, 2006; 한상철, 2008).

셋째, 학교 및 친구 요인으로는 선생님의 구타와 편애, 의사소통의 단절과 같은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 자존감의 저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자포자기의 심정, 비행청소년과의 접촉정도, 친구와의 애착도,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 및 태도, 학교 성적 등이 청소년들의 가출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김경희, 김지수,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넷째, 지역사회요인으로는 향락 및 성인 유흥시설 등 건전하지 못한 지역사회 문화와 관련된 다(김향초, 200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복잡적이므로 가출 예방 프로그램에 가족, 개인, 학교 및 또래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출예방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도 가출 예방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김만두, 1982; 문병희, 1997; 박경기, 1998; 박성수 외, 1996; 장윤정, 1997;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Balachova, Bonner, & Levy, 2009; MacKay, & Hughes, 1994).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안되는 예방 방안은 크게 부모 대상 및 청소년 개인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부모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부모교육과 훈련이 주를 이룬다. 그 내용으로는 자녀교육방법,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개선, 의사소통방법 개선, 가족 간 대화 확대, 가족의 지지 등이 있다.

가출 예방 프로그램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 개인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예방 방안은 청소년의 교우관계 개선, 가출 위험 잠재 학생에 대한 사전 지도,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 평소 생활태도 관

찰과 지도, 학습 적응 지도 등이다. 문성호(2000)는 유능성 훈련(social competence training)을 학교중심 통합적 개입 방안으로 꼽고 있는데 이 유능성 훈련은 자아통제력, 집단참여, 사회 인식기술, 비판적 사고기술, 의사결정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한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도록 하고 자신을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훈련, 분노관리와 갈등해결 및 타인의 관점 수용과 같은 사회인지 훈련, 현실적인 학업계획을 세우고 직업을 계획하도록 하는 훈련, 이성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 훈련, 일상적인 과업에 적용할 수 있는 대화기술훈련, 정부 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훈련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방은령(2003)은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출청소년들의 자원(resource)을 찾아주거나, 가출시 지켜야 할 것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안내 등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를 하는 것이 상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안과 같이, 청소년 대상으로 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출상황과 관련된 대처능력을 키우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교육프로그램에 구성요소로써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및 부모, 교사 대상의 예방 교육도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출관련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의 가출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은 이미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출 예방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가출 개입 프로그램에서 가출 예방과 관련된 구성요소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가출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둔 개인적 접근과 가족을 포함시키는 가족 참여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접근으로는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려는 사회성 기술 증진프로그램(손경숙, 2008)이나 사회기술 훈련(이정희, 2000)이 있다. 그리고 불안, 우울, 화 등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촉진하고 이 감정을 수용하고 조절하는 접근에는 계속탈트 집단치료(김민정, 김정규, 2006)나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김수정, 손경숙, 2007; 박은민, 2008),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임기순, 1998) 등이 속한다.

또한 자기개념을 수정하거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인지적 대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입장에서는 집단미술치료(김선관, 2001), 교류분석 프로그램(박미정, 1999), 재가출 예방을 위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조정자, 1999), 인지행동적 집단치료(류은수, 2005; 신강숙 1999), 해결중심 집단상담(최정은, 김성천, 2006) 등이 있다. 그밖에, 미래의 진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립 동기를 향상 시키려는 프로그램들로 진로설계 프로그램(남궁정, 2005)과 자립 동기 향상을 위한 직업 및 취업설계 프로그램(조규필, 권해수, 김범구, 박가열, 2008)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한번 가출한 학생들에 대한 개입으로 학교에서의 학습을 도우면서 또래나 지원집단을 활용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Kammer, & Schmidt, 1987),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접근(Janus, McCormack, Burgess, & Hartman, 1987),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Manov, & Lowther, 1983), 가출행동을 줄이기 위해 기능적인 행동 분석 접근(Clark et al., 2008) 등이 이루어졌다.

가족참여 접근은 재가출이나 가출 방지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인 교류나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전통적인 가족 치료적 접근(김도애, 남영옥, 2003; 박태영, 은선경, 2008; Lappin, & Covelman, 1985; Morgan, 1982; Slesnick, & Prestopnik, 2005)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거나(김효숙, 최외선, 2007; Barth, 1986),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지지적이면서도 자녀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시도가 있

었다(Fishman, 1988). 또는 가출 유형에 따라 가족을 관여시키는 정도를 달리하려는 접근(Orten, & Soll, 1980)도 있다.

즉, 청소년 가출에 관한 선행 교육프로그램과 연구들에서는 가족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예방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가족적 측면에서는 부모, 자녀간의 원만한 관계를 촉진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제안하며 개인적 측면에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 대처기술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주위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리는 것도 가출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제안하였다(김향초, 2002; 한상철, 2001).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 평가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초등학교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은 가출 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가?’이며, 가출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가출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있는지와 가출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평가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확인받고자 한다.

방 법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은 김창대(2005)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을 참고하여 계획-설계 및 조직-실행 및 평가 단계를 따라 개발되었다. 문헌과 선행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가출청소년의 경험 관련 심층면접 조사, 초등학교 학생의 가출 경험, 스트레스 대처, 가출예방 수업 등에 관한 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초등학교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프로그램 제시 전략을 수립하여 초등학교용 교육프로그램과 지

도사용 지침서, 부모용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예비실시를 하였고, 여기에 참여한 학생 및 지도자의 의견,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자문과 내용타당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평가도구를 선정하였다. 그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그림 1과 같다.

프로그램의 초안 개발 및 타당도 평가

구안된 프로그램의 이론적 타당성과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현장연구진 소속 초등학교 교사 2인과 이론전문가 2인에게 자문과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현장적용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었고, 수정사항 및 개선점에 대한 논의 후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표 1 참조). 또한 교구재 중 동영상은 우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5, 6학년 각 한 학급의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수렴하여 초기개발을 완료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문헌 연구의 시사점

첫째, 가출의 위험요인을 낮추고 보호요인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출의 예방이 될 수 있다. 가출의 위험요인 중 개인요인으로는 충동성, 부족한 문제해결 방식, 가정요인으로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선행 예방 프로그램이나 가출 개입프로그램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요인은 부모나 또래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것이다. 가출이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가출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p>1단계 : 계획</p> <p>① 문제의 진술 ② 대상자 선정 및 요구 분석 ③ 프로그램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문헌 고찰: 가출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손상시키며 청소년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국가적 문제로서 대부분 13~14세경에 첫 가출이 시작되는 등 우리나라 가출문제의 심각성과 저 연령화 문제를 확인함. - 심층면접조사: 가출청소년 8명 대상, 가출 전·후 경험 등에 대한 보고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가장 큰 가출원인으로 가족요인을 꼽았고, 가출로 인해 진로 준비 단절과 타락을 후회하였으며, 가출 후 생활고와 비행 및 피해경험을 보고하였고, 가출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에게 가출위험을 경고할 것을 당부하였음. - 설문조사: 초등학교 884명의 6학년 학생 대상. 그 결과 학생 학생의 50.5%이상이 가출욕구가, 6.2%가 가출경험이 있음. 가출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갈등상황에서 가출욕구를 느꼈다고 하였으며, 가출욕구와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회피적, 기본전환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p>이를 기본으로 하여 가출 시작 전 시기에 해당되는 초등학생들에게 가출의 실상을 인식하도록 돕고, 가출충동을 느낄 때 효과적인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p>
---	--



<p>2단계 : 설계 및 조직</p> <p>① 선행 프로그램 고찰 ② 프로그램 목표 진술 ③ 프로그램 제시 전략 수립 ④ 프로그램 및 지침서 구성 ⑤ 예비 실시 및 내용 타당도 평가 ⑥ 프로그램 수정보완 및 개발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선행프로그램 고찰 및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목표 설정 : 가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며, 아동청소년이 가출 충동을 경험하기 쉬운 부모와의 갈등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화하며, 힘든 상황에서 도움 요청과 같은 효과적인 대처방식이 무엇인지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로그램의 목표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영역으로 성취해야할 과제와 내용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하위목표를 진술함 - 초등학생의 가출예방 수업 관련 의견 결과, 학계 및 교사의 자문을 받아 2교시 분량의 단기교육시간, 애니메이션을 통한 사례 제시 및 토의, 게임, 역할극 등 활동적 진행방식을 선택함. - 아울러 부모용 가출예방 교육 자료를 함께 구성. <p>프로그램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지도자가 활용할 프로그램 지침서에는 프로그램 목표 및 구성 원리를 소개하고, 진행 방법 및 진행 예시, 가출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개입방법을 제시함. 이때 참가자들에게는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적일 수 있는 워크북 형식의 교재를 만들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실시: 애니메이션 상영 및 프로그램 초안을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에 예비 실시, 학생과 지도자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 구성 내용과 평가도구 선정과 관련하여 현장전문가 및 학계전문가에게 내용 타당성을 평가받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개발을 완료함
---	--



<p>3단계 : 실행 및 평가</p> <p>① 프로그램 실시 ② 프로그램 평가 - 성취도 평가 - 참가자 관점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시연 및 논의시간: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지도자(초등교사 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연과 논의시간을 가짐. <p>지도자들은 소속 학교에서 재량시간 등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4~6학년 학생 실험집단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실험집단 학생들의 부모에게는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내 및 부모용 가출예방 교육자료를 전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방법은 초등학생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집단과 무처치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이질 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사용 성취도도 평가는 프로그램 실시 전후, 2~3주 후에 실시되었고, 참가자 관점평가는 교육프로그램 실시 직후 실시됨.
--	---

그림 1.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따른 초등학생 가출예방 프로그램 개발 절차

표 1. 자문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 요약

자문 및 평가 결과	수정사항
강의식 교육프로그램은 지루하기 쉬우므로 게임이 활용되길 바람	가출 위험을 높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OX형태의 게임(깜박깜박신호등게임)을 도입
현재 학생들이 시청각 교육프로그램에 익숙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동영상, 파워포인트 자료를 함께 개발함
가출 위험은 부모와의 갈등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주므로 부모의 가출예방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됨	초등학생의 가출 예방 및 가출 후 대처방법 등에 관한 부모안내 지침을 제공함
가출 위험이 높은 초등학생들이 가출하지 않고 적절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자료로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기 바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상담전화로 도움을 청하는 과정을 영상자료로 개발하여 포함함
교사의 수준에서 가정 및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침 필요	교사용 매뉴얼에 가정 및 청소년에게 가출위험과 관련하여 개입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추가함

이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 뿐 아니라 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위기아동과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밝혀진 지식적인 측면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호기심이 많고 충동적인 특성을 가진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가출 후의 생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출한 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가출 예방 프로그램 내용에는 포함될 수는 없겠지만 가족들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실제 학교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은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심층면접 결과의 시사점

첫째, 심층면접결과 모든 가출청소년의 가장 큰 가출원인은 부모의 방임, 학대, 폭력, 잔소리, 책임 전가, 차별 등 가족 요인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양육태도를 갖고 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가출청소년의 가출은 힘든 환경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출청소년의 특성은 물론 그만큼 힘든 가족환경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이었다고 생각되나, 계획이나 준비 없이 도망가듯이 가출하면서 가출이후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가출예방프로그램을 통해 가출 충동시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하도록 청소년들에게 교육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출청소년은 가출 후 생활고통을 겪었고 나쁜 행동을 하거나 당하였다. 가출청소년들은 가출 후 돈이 떨어지면 굶거나 노숙하는 등 의식주와 관련된 고통을 가장 크게 호소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은 가출 후 비행행동을 더 하게 되었으며, 갈취나 성폭행을 당하는 등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 이러한 가출 후 심각한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여 단순 충동 가출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출청소년들은 가출했을 때 쉼터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제 가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 설문조사의 시사점

첫째, 학생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중 특히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에서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제시하고 가출생각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학생들은 부모님이 이유를 듣지 않고 야단부터 치실 때, 부모님의 체벌과 폭력, 부모님의 심한 잔소리 상황에서 특히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부모님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출 욕구를 느끼거나, 가출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스트레스 대처양식 중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회피적 대처나 기분전환 방법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이 회피적 대처나 기분 전환방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셋째, 가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대처방법 등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가출예방교육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출에 관한 일반적 지식, 가출 현황, 가출의 원인, 가출의 결과 등 '가출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알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넷째, 설문조사 결과, 가출하고 싶을 때의 대처법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그 밖에도 '가출 후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가출 시의 실제적인 대처방법도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은 '영상물(영화, 슬라이드)'(68.1%), '게임 활동'(62.7%) 등을 가장 좋아하는 가출예방 수업방식으로 꼽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발

달적 특성이나 참여 동기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시청각자료 및 활동적 게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다 흥미롭고 친숙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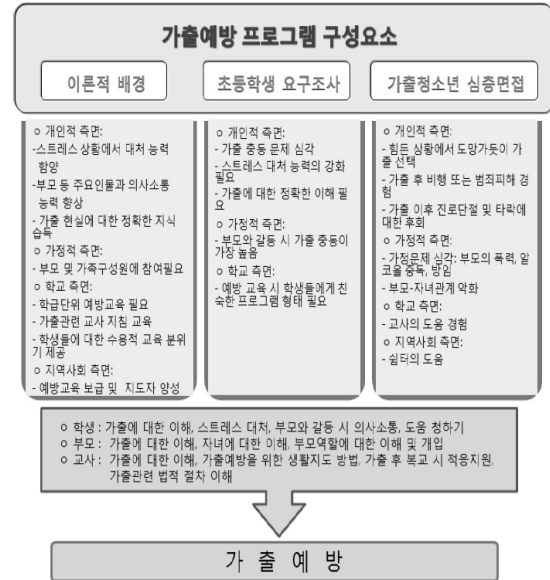


그림 2. 초등학생 가출예방 프로그램 구성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본 가출예방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로 가출에 대한 이해, 스트레스 대처, 부모와 갈등 시 의사소통, 도움 요청하기가 선정되었다(그림 2 참조).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프로그램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초등학생들이 가출이후 생활 등 가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환상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출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가출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가출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가출 이외의 보다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둘째,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결과 가출은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충동적 행동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회피하는 방법이며 올바른 문제해결 방식은 아니므로 스트레스 대처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가출은 부모와 갈등 시 가장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모와 갈등 시 보다 올바르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가출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가출할 수밖에

표 2. 초등학생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 학생용워크북 구성 내용

프로그램명	단계(시간)	구성요소	단원명	진행 내용
초등학생 가출예방 교육 프로그램 (STAY) 학생용 워크북	1 교 시	도입 (10분)	가출에 대한 이해	집 나가면 어떤 길? - 프로그램의 목적 등 오리엔테이션, 인사 - 애니메이션 ① 시청 후 느낌과 생각 탐색
			가출에 대한 이해	- 파워포인트 자료, 가출청소년들의 인터뷰 녹취 자료 제시 - 학생들이 가출 충동을 느끼는 상황 탐색, 실제 가출경험자들이 가출을 선택하는 이유, 결과 등을 돌아보면서 가출이 ‘힘든’ 선택이며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
	활동1 (30분)	스트레스 대처	감박감박 신호등게임	- 스트레스대처유형(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 / 회피적 대처 및 기분전환 대처)을 구별하며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인식 - 느낌 탐색 및 토의 :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비효율적 해결 경험을 함께 탐색하며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 있을지 토의
	휴식(10분)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음악 들려주기
	2 교 시	활동2 (35분)	- 부모와 갈등 시의 사소통 - 도움요청하기	가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요.
종결 (5분)				- 애니메이션 ④(주인공이 가출 욕구를 느끼는 상황에서 대안적 행동을 수행하며 문제해결적 결말을 맺음) 시청 후 느낌 나누기 - 교육 후 소감 나누기

에 없는 위험한 가족상황에서는 가출보다 교사와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을 교육한다.

초등학생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은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총 2교시(각 40분)로 이루어진다. 본 프로그램은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¹⁾이며 학교 수업시간에 활용 가능한 측면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학급단위로 실시되는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실행되고 효과가 입증된 바 있는데 초등학생 4-6학년의 예방프로그램 요구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일반 수업시간을 활용한 시청각을 이용한 교육을 선호함이 나타났다(박은옥, 2004; 문정순, 송경애, 박선남, 김한숙, 2003). 또한, 실제 프로그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담 프로그램들이 교사와 학생들의 시간 활용 측면과 학교라는 특수한 조직의 특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들은 현직 교사들

1) 예방 프로그램은 크게 선별적 예방 프로그램(selective prevention program)과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universal prevention program)으로 분류된다. 문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이 선별적 예방 프로그램이라면, 일반적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이다.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들은 학급단위 교육의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로 이루어진 현장연구진들의 의견과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들의 운영방식 및 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프로그램화 하는 것을 고려하여 2교시로 구성하였다.

1교시는 '도입-활동 1'로 구성 되는데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가출청소년의 인터뷰 자료를 청취하면서 가출의 실상을 이해하게 하고, 가출 충동을 느낄 때 가출 대신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의 필요성을 인식, 가출 충동을 자극받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 대처방법을 게임 활동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활동2- 마무리'로 구성된 2교시에는 애니메이션 자료를 시청하면서 부모와의 갈등 시 효과적인 대화법과 부모의 학대 상황 시 집을 나와 도움을 청하는 과정을 역할연습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밟는다. 교육프로그램의 마무리로서 가출 욕구를 느끼는 상황에서 대안적 행동을 수행하여 문제해결적 결말을 맺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교육프로그램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통하여 자신의 가출 예방 의지를 다질 기회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표 2 참조).

지도자용 지침서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진행 방법 외에도 가출 현상에 대한 이해와 개입방법을 제시하여 지도자로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추가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주된 가출원인이 가족요인임을 국내외 문헌과 학생 대상 요구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부모를 위한 교육 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였는데 가출의 의미, 가출 동기에 대한 이해, 자녀의 가출 예방, 자녀의 가출시 대처, 자녀의 복귀 후 대처, 자녀의 재가출 예방법에 관해 수록하였다(표 3 참조).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 소재한 5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로, 지도자의 소속 학교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학급을 실험집단, 통제집단으로 활용하였다. 그 중 실험집단은 재량수업시간, 도덕시간 등에 지도자(담임교사)로부터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 수업을 들었고 통제집단은 동학교 동학년 학급학생들로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았다. 또한 실험집단의 학부

표 3. 초등학생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 지도자용 지침서, 부모 교육 자료의 구성 내용

구분	구성요소	내용
초등학생 가출예방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지도자용 지침서)	-가출에 대한 이해 -생활지도 방법 -적응지원 -법적절차 이해	- 초등학생 가출예방교육프로그램(STAY)의 각 단계별 축어록 수준의 진행 예시 제시 - 가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개입방법 제시 (가출의 정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가출 현황, 가출 시기, 가출의 위험성, 가출 위험 요인 및 경고 신호, 가출 전후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 가출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 등)
초등학생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 부모 안내서	-가출에 대한 이해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역할의 개입 및 이해	- 초등학생 가출예방교육프로그램(STAY)의 소개 - 가출이란?(가출의 정의, 아동·청소년의 가출 이유) - 가출을 예방하려면(가출 신호 알아차리기, 자녀의 가출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 도움 되는 대화법, 체벌 문제, 자녀에게 실망하고 화가 날 때 대처 방법) - 가출한 우리 아이 어떻게 도울까?(자녀 찾기, 자녀와 통화가 되었을 때 대처, 부모가 먼저 자녀를 찾았을 때 대처) -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 - 재가출을 예방하려면(새 생활 시작하는 자녀 심정 이해하기, 자녀가 마음 붙일 수 있는 가정환경 조성하기, 친구관계 형성 도와주기, 미래 비전과 희망 가꾸어가기, 주변 환경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모에게는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알리는 가정통신문과 가출예방을 위한 부모안내서가 함께 배부되었다.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에서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중 1개라도 누락된 학생들을 모두 제외하고, 교육프로그램과 3가지 검사에 모두 참여한 실험집단 215명(총 8학급), 통제집단 215명(총 8학급)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집단별 연구대상의 성, 학년, 나이, 가정경제수준, 가족형태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대상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분포

변인	구분	집단별 인원(백분율)	
		실험	통제
성	남 자	114(53.0)	115(53.5)
	여 자	101(47.0)	100(46.5)
학년	초 4	87(40.5)	76(35.3)
	초 5	49(22.8)	57(26.5)
	초 6	79(36.7)	82(38.1)
나이	10세	7(3.3)	14(6.5)
	11세	83(39.5)	70(32.7)
	12세	51(24.3)	54(25.2)
	13세	68(32.4)	76(35.5)
	14세	1(0.5)	0(0.0)
	결측	5(2.5)	0(0.0)
	상	13(6.1)	17(7.9)
가정 경제 수준	중상	88(41.1)	81(37.7)
	중	88(41.1)	91(42.3)
	중하	20(9.3)	22(10.2)
	하	5(2.3)	4(1.9)
	결측	1(0.5)	0(0.0)
가족 형태	부모	197(91.6)	192(89.7)
	한부모	10(4.7)	16(7.5)
	재혼부모	1(0.5)	0(0)
	조부모	4(1.9)	3(1.4)
	기관 · 시설	0(0.0)	1(0.5)
	형제 자매	1(0.5)	0(0.0)
	아는 오빠, 누나	1(0.5)	0(0.0)
	기타	1(0.5)	2(0.9)
	전체	215(100)	215(100)

연구도구

가출의식

안창규, 문선화, 전윤식(1995)이 제작한 청소년 가출의식 분석척도 중 조사대상자 일부에 해당되는 보편적이지 못한 6개 문항을 제외하여 채봉균(2002)이 5점 척도 총 25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하위요인 없이 '가출에 대한 허용 정도',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가출 욕구 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6, 23, 24, 25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모두 역산하여 채점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가출을 인정하고 가출행동화 하는 경향성이 높다. 채봉균의 연구(2002)에서 가출의식 척도의 신뢰도 α 는 .89였다.

본 프로그램은 2교시 수업분량의 단기교육프로그램이므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 스트레스상황에서의 가출 행동화 욕구의 변화를 측정하기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가출 가능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가출의식 척도의 내용 중 '~하고 싶어서 가출하고 싶다'와 같은 문항을 '~하고 싶으면 가출할 수 있다'의 형태로 질문 내용을 바꾸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출의식 척도의 신뢰도 α 는 .93을 나타냈다.

스트레스 대처 양식

Lazarus와 Folkman(1984)의 대처양식척도와 Sandler(1990)의 아동 대처전략 체크리스트를 번안 수정하여 신은영(1998)이 개발한 대처양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 중심 대처 4문항, 회피적 대처 5문항, 기분전환 4문항, 지지추구 5문항의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총 18문항의 6점 척도로 점수가 18점~108점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대처양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은영의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문제중심 대처 .83, 회피적 대처 .85, 기분전환 .76, 지지추구 .78, 전체는 .81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단기 교육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직후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관한 지식을 묻는 형태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제 중심 대처와 지지추구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처양식으로, 회피적 대처 및 기분전환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처양식으로 보고,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집단 간 정답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는 가출 자체가 회피적 대처방식이라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며, 회피적 대처, 가출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초등학생들보다 회피적 대처, 기분전환적 대처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중심대처 0~4점, 회피적 대처 0~5점, 기분전환 0~4점, 지지추구 0~5점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대처양식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척도의 수정방향(1차) 및 수정안의 적용결과(2차)에 대해 관련 학계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감수를 요청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가자 관점 평가 및 회기평가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추후검사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외에도 참가자 관점 평가를 활용하였다. 참가자 관점의 평가란 수혜자 즉, 교육의 참가자가 교육 내용과 함께 그 과정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 참가자에게 보다 큰 만족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이호준, 2006). 참가자 관점의 평가 척도는 프로그램의 성과만이 아니라 과정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가치 또는 장점을 의사결정자 또는 잠재적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종합평가의 의미를 갖는다(이성흠, 2005). 참가자 관점 평가를 하기 위해 실험집단의 학생과 부모에게 교육프로그램의 이해용이성, 프로그램 만족도, 유익성, 목적 부합성, 활용가능성 등에 관한 5개의 질문을 5점 척도 형식의 질문지로 제공하였다. 또한 지도자에게는 교육프로그램의 시의 적절성, 목적 부합성, 실용성, 유익성, 결과기여도를 나타내는 5개의 질

문을 5점 척도 형식의 질문지로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회기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실험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내용에 대해 유익했던 내용, 좋지 않았던 내용, 개선사항에 대해 서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참여지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이후 개별면담 등을 통해 회기평가, 운영상의 어려움, 효과적 방법의 제안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개발한 초등학생 가출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통제집단 대상 사전-사후-추후검사 설계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지도자 선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2009년 3월 상담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4~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초등상담연구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현장연구진으로 구성, 프로그램 개발 과정 초기부터 자문과 평가활동에 참여하게 하였다. 2009년 8월~9월 사이에 현장연구진을 통해 일선 초등교사 중 인성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현재 4~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추천받았다. 기 현장연구진과 추천 받은 초등교사 총 8명을 프로그램 지도자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지도자들은 소속 학교의 동학년 교사의 협조를 얻어 2009년 9월 14일~18일 사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사전 검사지를 배포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9월 29일에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가출예방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전워크숍을 개최하여 시연과 논의 시간을 가졌다. 지도자들은 2009년 9월 30일~10월 15일 사이에 실험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재량시간, 예체능수업, 도덕시간 등을 사용하여 프로그램(1회, 2교시)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을 마친

표 5. 진행 절차와 검사 시기

집단	사전검사	프로그램 진행	사후검사	추후검사
(검사 시기)	2009. 9. 14~18	2009. 9. 30~10. 15	2009. 9. 30~10. 15	2009. 10. 15~10. 30
실험집단		초등학생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 (2교시, 총 80분)	사후검사, 참가자 관점 평가 (지도자 평가)	사후검사와 동일
통제집단	실험집단과 동일		사후검사	실험집단과 동일
실험집단 학부모		부모교육자료	참가자 관점 평가	

후에는 사후 검사지를 배포하여 학생들에게 작성하게 한 후 수합하였다. 동일한 시기에 통제집단에게도 담당교사의 협조를 얻어 사후 검사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작성하게 한 후 수합하였다. 또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본 프로그램의 운영 소식을 전달하였다. 가정통신문을 학생 혹은 우편으로 전달하거나, 학급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학부모가 본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자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부모교육 자료는 학생들을 통해, 혹은 우편으로 전달되었고 부모들은 교육자료를 읽은 후 참가자 관점 평가지를 작성하고 학생들을 통해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참가자 관점 평가지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지도자들이 직접 연락하여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히고, 교육자료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평가지를 수합하였다. 교육이 실시된 약 2~3주 후(10월 15일~10월 30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추후검사가 실시되었다. 각 집단별 진행절차와 검사 시기는 표 5와 같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처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평균분석, 신뢰도분석,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 및 추후검사에 대한 집단 차이를 통해 가출예방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가출의식, 스트레스 대처의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전, 사후, 추후검사의 총점을 채점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공분산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사후검사점수 및 추후검사 점수에 나타난 처치효과 외에 개인차 변인으로 인해 생긴 오차를 통제하여 독립변인에 따른 순수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즉시적 효과와 지속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생의 가출의식 및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효과

첫째,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가출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별 사전-사후-추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후-추후검사의 교정평균 및 표준오차를 산출하고, 표 7과 같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다변량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 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출의식에 대해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F = 5.306, p < .05$). 이와 같은 결과는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표 6. 척도별, 집단별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교정평균

척도	집단	N	사전		사후			추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정 평균	평균	표준 편차	교정 평균
가출 의식	통제집단	215	95.13	18.85	92.74	19.55	91.10	87.23	17.18	87.31
	실험집단	215	90.34	18.80	92.26	16.22	93.90	91.45	16.34	91.36
스트레스 대처	통제집단	215	14.50	2.55	14.60	2.66	14.58	12.72	4.10	12.71
	실험집단	215	14.44	2.48	16.27	2.12	16.29	13.90	3.35	13.90

표 7. 가출의식척도 및 스트레스대처 하위척도별 공분산분석 결과

변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가출의식	사후	집단	829.106	1	829.106	5.306*	
		오차	66727.205	427	156.270		
	추후	집단	150.483	1	150.483	10.804**	
		오차	5,947.241	427	13.928		
스트레스 대처	문제중심 대처	사후	집단	14.638	1	14.638	18.753***
			오차	216.220	277	.781	
		추후	집단	1.667	1	1.667	1.939
			오차	238.118	277	.860	
	지지추구	사후	집단	9.627	1	9.627	19.050***
			오차	139.984	277	.505	
		추후	집단	.677	1	.677	.514
			오차	364.833	277	1.317	
	회피적 대처	사후	집단	39.341	1	39.341	32.230***
			오차	338.110	277	1.221	
		추후	집단	1.398	1	1.398	.314
			오차	1231.7090	277	4.447	
기분전환	사후	집단	.001	1	.001	.002	
		오차	112.554	278	.405		
	추후	집단	.718	1	.718	1.885	
		오차	105.883	278	.381		

표 8. 실험집단 학생, 부모, 지도자의 참가자 관점 평가 결과

프로그램 및 부모안내서의 참가자 관점 평가 영역	실험집단 학생		학부모		프로그램 지도자의 참가자 관점 평가 영역	지도자	
	N	평균	N	평균		N	평균
프로그램의 이해 용이성	215	4.45	195	4.33	프로그램 개발의 시의적절성	8	4.75
(참여) 만족	215	4.29	194	4.04	목적부합성	8	4.63
목적부합성	215	4.33	195	4.14	실용성	8	4.5
유익성	215	4.33	193	4.17	유익성	8	4.88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215	4.45	194	4.26	결과기여도	8	4.88

가출의식이 가출예방프로그램을 처치 받은 직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추후검사에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F = 10.804, p < .01$).

또한, 초등학교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스트레스 대처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척도별 사전-사후-추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후-추후검사의 교정평균 및 표준오차를 산출하고, 표 7과 같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제중심대처, 지지추구가 문제해결에 도움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F = 18.753, p < .001$; $F = 19.050, p < .001$). 한편, 회피적 대처가 도움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F = 32.230, p < .001$), 기분전환에 대해서는 집단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추후검사에 대해 문제중심대처, 지지추구, 회피적 대처, 기분전환에 대해 집단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스트레스 대처의 인식에 대해 초등학교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의 지속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프로그램 참가자 관점 평가 및 회기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학생들에게 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 및 프로그램 추천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213명) 중 84.3%(182명)가 대체로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보고하였고, 가출예방교육의 추천 의향을 질문한 결과 93.0%(198명)가 친구들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참가자 관점 평가를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의 이해용이성이 5점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4.45, 활용가능성이 4.45 동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밖에 목적부합성(4.33), 유익성(4.33), 프로그램 만족도(4.29)에 대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부모의 경우 부모안내서에 대한 참가자 관점 평가를 실시한 결과 195명이 참여하였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해용이성이 평균 4.33, 활용가능성이 4.26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프로그램의 유익성(4.17), 목적부합성(4.14), 만족도(4.04)에 대해서는 평

균 4점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지도자 8명 역시 참가자 관점평가를 수행하게 한 결과 프로그램의 유익성이 평균 4.88, 활용가능성이 4.88 동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밖에 프로그램의 시의적절성(4.75), 목적부합성(4.63), 실용성(4.5)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 회기 활동에 대한 평가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직후에 유익했던 내용, 좋지않았던 내용,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서술식 응답으로 이루어졌다(표 10 참조). 첫째, 유익했던 내용에 대해 215명 중 206명(95.8%)이 응답하였고, 프로그램 중 애니메이션 동영상, 가출 관련 도움 요청 방법, 깜박깜박신호등게임 순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의 경우 '흥미로움', '주인공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도움 요청에 관해서는 '가출할 때 안전한 곳을 알았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이 보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둘째, 좋지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동영상'의 영상이 끊기고 렉이 걸리는 등 학교의 정보화시스템 사정에 따른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밖에 동영상이나 프로그램 내용 중 기분이 안 좋았던 내용을 주로 지적하였다. 셋째, 개선 요청사항으로 동영상의 내용 및 길이, 인터뷰의 내용 및 선명도에 대한 개선, 게임 및 체험 활동 추가 요청 등이 있었다.

지도자의 프로그램 회기 평가는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고 좋았던 점, 진행상의 어려움,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방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첫째, 프로그램에 대해 좋았던 점으로는 '짜임새가 있고, '책자나 애니메이션, 파워포인트자료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게 구성했다',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았고 공감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진행상의 어려움에는 가출의 개념 이해의 어려움, 동영상에 대한 학년별 공감 수준의 차이, 4학년의 경우 가출청소년 인터뷰 내용 이해의 어려움, 초등학교 교과서와의 내용 충돌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개념적 혼란, 아동학대 상황에 대한 공감 문제 등의

표 9. 실험집단 학생의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에 대한 평가(서술식 응답)

질문	프로그램 내용	진술 예문	응답수	
유익했던 점 (206명)	1교시	애니메이션 동영상 (1, 2교시 포함)	-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영상을 넣어 프로그램을 만든 점이 좋았다 - 동영상에 대해 느낀 점을 적었던 것 - 주인공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서 - 사례를 보여주니까 이해가 잘 되어서	79 (38.3)
		깜박깜박 신호등게임	- 신호 게임이 특히 재미있었다. - 게임으로 해서 좋았다 - 스트레스 풀 때 나쁜 방법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서	32 (15.6)
	2교시	내마음 전달하기	- 아이의 기분이나 마음도 들어보고 이해해줘서 그런 점이 좋다 -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기분 좋게 말하는 법 - 부모님과 사이를 개선할 수 있게 해준 게 좋다 - 프로그램 보고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24 (13.1)
		도움 요청	- 가출했을 때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알게되어서 -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이 보면 좋을 것 같다	48 (23.3)
	기타	-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진 것 같다 - 가출은 필요 없다고 느꼈다 - 가출하면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알았다 - 가출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아이들만 보지 말고 부모님들도 많이 봐야 할 것 같다	23 (11.7)	
좋지않았던 점 (50명)	1교시	애니메이션 동영상 (1,2교시 포함)	- 아빠가 술 취하고 화내신 것 - 동영상에 액이 걸려 자주 끊겨 짜증났다 - 동영상이 억지 같았다, 소감문 쓰는 거	34 (68.0)
		가출경험 청소년 인터뷰	- 인터뷰 내용이 기분이 나쁘다 - 가출해서 나쁜 사람한테 돈 뺏기는 게 기분 나쁘다 - 인터뷰 목소리가 듣기 싫다	6 (12.0)
		깜박깜박 신호등게임	- 게임이 어렵다	2(4.0)
	2교시	내마음 전달하기	- 주인공 도와주기가 재미없다 - 대화법의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다	2 (4.0)
		도움요청	- 일시보호소 내용이 없었다.	1 (2.0)
기타	- 소감문 쓰는 거 - 하고 싶은 말 쓰는 거 - 가출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별로다 - 지루했다, 현실에 맞지 않다	5 (10.0)		
개선 요청사항 (82명)	1교시	동영상 (1,2교시 포함)	- 동영상이 더 많았으면 - 술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 PC방이 안나왔으면 - 주인공이 가출하는 것을 바꾸었으면 - 내용이 더 길었으면	47 (57.3)
		가출경험 청소년 인터뷰	- 가출하는 원인에 대해 더 많이 정확하고 자세하게 - 목소리가 더 선명했으면 - 경험담이 더 자세했으면	12 (14.6)
		깜박깜박 신호등게임	- 신호등 말고 다른 것으로 - 신호등 대신 실제 있었던 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4(4.9)
	1교시	내마음 전달하기	- 학생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 대화법을 역할극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8(9.8)
	기타	- 컴퓨터가 있다는데 실제로 사진이 있었으면 - 게임이나 놀이, 체험활동이 더 추가되었으면 - 1388 외 다른 방법을 알고 싶다	11 (13.4)	

어려움을 말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개선 사항으로 '가출'의 법적 정의와 현실적 체감 기준을 변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동영상의 경우 사전 시연이 필요하며, 가출경험청소년 사례별 설명을 좀더 추가하고, 신호등게임 내용의 문항별 설명을 보완하고, '내마음 전달하기'는 역할극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안사항으로는 2교시 교육시간의 준수, 교사의 모델링 및 강화 필요, 학급 게시판의 활용, 프로그램 운영 교사에 대한 교육 강화, 가출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식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논 의

가출 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밝혀졌듯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관되어 청소년의 미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실태 및 개입에 초점을 두어왔으며 정부 정책도 예방보다는 개입에 초점이 있어왔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2007, 2010). 가출이 조기화되고 첫 가출이 재가출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첫가출을 예방하는 것이 가출의 악영향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안임이 인식되면서 가출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향초, 2009; 문성호, 200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용 가출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초등학교 대상 요구조사, 가출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의 개발과정을 토대로 가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출 충동의 대처라는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를 선정하였다. 이는 가출 생활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이해를 시키는 것, 가출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적, 공격적 해결책이 아닌 문제 해결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가출을 참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학교차원의 예방교육을 활용하고자 담임교사가 학급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전체 2교시 분량으로, 1교시에는 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적, 공격적 등 부적절한 대처를 하기보다는 문제해결적 대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교시에는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이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과, 가출하고 싶을 때 도망가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효과적인 교육 내용 전달을 위해 초등학생에게 맞는 교구 재료써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프로그램에 도입하였다.

학교에서 교사가 가출예방과 가출시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지침서를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가출에 대한 현황, 가출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방법, 가출관련 법적 절차 등이다. 또한 부모대상 가출 예방 및 개입 안내서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진행시 부모에게도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용 안내서는 자녀의 가출에 대한 이해,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것, 자녀가 가출했을 때, 복귀했을 때의 대처 등 부모에게 가출 상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교사 8인이 프로그램지도자 교육에 참여한 후 시범운영 지도교사로 참여한 시범운영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가출 의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추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에서 프로그램의 지속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사전에 가출의식의 점수가 더 높았고, 검사를 반복할 때마다 가출의식척도의 점수가 하향세를 보여, 통제집단 참여자들은 점차 가출을 인정하고 가출을 행동화할 경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 이는 비록 현재 가출을 직접 행동화하지는 않는 청소년일지라도 가출의식이

낮다고 생각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가출의 심각성은 위기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0). 통제집단의 가출의식척도의 점수 변화에는 약 1, 2개월에 걸친 동일검사의 반복 실시에 따른 연습효과나 성숙효과, 반복 측정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증가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 측의 입장과 연구 일정을 고려하여 아무런 처치 없이 약 2~3주 간격으로 사전-사후-추후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자들은 지도자들에게 통제집단의 반응을 관찰하게 하였고, 대기집단화하여 가출예방프로그램을 추후 실시하게 하였다. 또한 지도자들이 실험집단 참여자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 가출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후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검사환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을 통계방법으로 선택하였으나 본 연구의 제한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다른 표본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 실시 환경 조건을 엄격히 관리하여, 가출의식의 변화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처치 직후에는 하위척도 중 문제중심 대처, 지지 추구, 회피에 대한 인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보였고, 기분전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처치효과가 없었고, 스트레스 대처의 4가지 하위척도 상의 지속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출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직후에 초등학생들이 문제중심적 대처와 지지추구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회피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시 활용할 수 있는 적응자원이 결핍되어 있어 합리적인 문제해결적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가출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구본

용, 2002; 박명숙, 2006; 이종화, 김경희, 김희영, 정혜경, 2006; 한상철, 200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문제해결적 대처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가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분전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기분전환에 해당되는 문항의 내용을 보면 오락이나 게임, TV 시청 등 참여대상이 평소 많이 하는 행동일 수 있으므로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해도 이러한 행동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인식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이후 스트레스 대처 인식의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교육 시간이 1교시 중 약 30분에 불과하다는 점, 스트레스 대처의 특정 하위양식을 보다 문제해결적인 방법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충돌한 결과 등의 문제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초등학교 교과와 관점을 일치시키되 문제중심적 대처와 지지추구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마친 후 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참여 학생들과 시범운영 지도 교사, 부모들은 모두 만족한 반응을 나타내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사항으로는 실험집단 학생들은 동영상의 내용 및 상영시스템 개선, 체험 활동 추가 등을 제안하였고, 지도자들은 '가출' 정의에 대한 현실적 전달, 동영상의 사전 시연, 가출경험청소년의 설명 추가, 역할극 등 활동형 학습방법 추가 등을 제안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교장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가출 이후 개입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예방에 대한 방향제시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부모, 교사에게 예방차원의 개입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이후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출 예방 개입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수월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 및 부모의 가출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가출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시범운영을 통해 얻게된 프로그램을 위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요소는 유지하되 가출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상황 및 사례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움 요청하기 활동이 학생들이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할극과 같은 활동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추가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프로그램 수정과 관련해서 동영상 수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어, '동영상'이 끊기는 등 원활하게 상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본 프로그램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와 같은 사항들은 보완되어 프로그램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이 이후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교사 대상의 교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교사가 2교시 동안 프로그램 교육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시범운영 지도교사들도 지적인 바대로 프로그램 내에서 교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강조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개발의 취지와 의미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워크숍 형태의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보급 및 교육을 위한 체계 및 예산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 대상 프로그램 매뉴얼, 학생용 워크북, 부모용 안내서 등 교재 인쇄를 위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교육시키면서 보급을 전담할 기관 및 보급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홍보가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이 일선학교에 널

리 보급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프로그램 전달이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유관부처와의 협조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가출문제에 대해 교사, 부모,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이 함께 협조하고 조력하는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실시와 보급을 통해 가출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가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출 예방을 위한 정책제안으로는 첫째, 지역사회내의 열악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심리, 사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가출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정신적 건강 문제, 즉 알코올 중독, 방임, 폭력 등이 주요인이었으며 이를 청소년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지역사회 내 성인의 정신건강에 대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부모를 상담, 지원, 치료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2009년 11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주도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연계를 통해 전국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1차적으로 본 프로그램이 보급된 바 있다. 이후 아동청소년의 가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지속적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상담기관, 복지기관, 보호기관 등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취약가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을 통해 가출하는 아동청소년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설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보다 실효성이 높은 연계망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심화되는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

적 개입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내에서 상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양성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가출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및 가출의식에 관한 검사로 이루어졌다. 비록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 추후 검사 결과 프로그램 처치의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나 참여 학생들의 실제 가출행동을 줄이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단기측정으로 이루어진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용 가출예방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였으나, 부모들의 가출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는지의 효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소년의 가출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출 예방관련 부모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은 서울, 경기 5개 학교 8학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즉, 추후연구에서 다른 지역의 학교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효과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현장 적용을 통한 피드백을 축적하여 향후 지속적인 개선과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강성래 (2003). **가출 청소년에 대한 실태 분석: 가출 경험 집단과 가출 미경험 집단 비교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찰청 (2009). <http://www.police.go.kr/> 2011. 8. 4 검색

구분용 (2002). 가출 청소년의 상담 개입 방안, 가출 청소년의 이해와 대처, **청소년상담 전문직 자원봉사체제교재3**.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2007년 청소년 백서**. 국

가청소년위원회.

김경희, 김지수 (2007). 고등학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3(3), 338-348.

김도애, 남영옥 (2003). 가출 청소년 가족에 대한 대 상관계 가족치료 모델의 적용. **상담학연구**, 4(1), 147-165.

김만두 (1982). 청소년 가출문제와 그 예방모델에 대한 연구. **강남사회복지학교 논문집**, 10, 191-218.

김민정, 김정규 (2006). 게슈탈트집단치료가 가출청소년의 자기개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여자 가출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41-57.

김선관 (2001). **가출소녀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사례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경 (1997). **가출 소녀를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수정, 손경숙 (2007). 가출청소년의 정서조절 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사회복지연구**, 35, 409-439.

김영미, 정문희 (2005). 초등학생용 웹기반 음주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보건교육**, 22(4), 17-40.

김중선 (2002). **청소년의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창대 (2005). **1급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청소년상담프로그램개발론 WORKBOOK**.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향초 (2002) 가출 및 가족 해체 예방책 마련에 관한 제안. **한국사회문화연구소**, 232, 32-36.

김향초 (2009). **가출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학지사.

김효숙, 최외선 (2007). 가출 여중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미술치료 사례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 16(6), 1153-1168.
- 남궁정 (2005). **여성 가출청소년을 위한 진로설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궁정, 조호제 (2008). 가출여자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진로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1), 125-146
- 류은수 (2005). **인지행동적 집단치료가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분노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병희 (1997). **청소년 가출의 실태와 예방 대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호 (2000).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통합적 개입 방안. **사회복지정책**, 11, 161-181.
- 문정순, 송경애, 박선남, 김한숙 (2003). 초등학교의 음주예방교육 요구. **아동간호학회지**, 9, 180-189.
- 박경기 (1998). **청소년 가출 현황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8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 (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1), 85-106.
- 박미정 (1999). **가출청소년의 자아 상태 변화를 위한 교류분석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수, 이병철, 박금남, 신은아, 이경희, 임희용, 김현정 (1996). 청소년 가출의 실태와 개선 방안. **학생생활연구**, 2(1), 15-44. 경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박영호, 김태익 (2002). 가출 예측 척도에 의한 여중생들의 가출 요인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0(2), 81-99.
- 박은민 (2008). **가정학대 피해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서조절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옥 (2004). 흡연예방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4, 1004-1013.
- 박태영, 은선경 (2008). 가출 청소년의 가족 치료 사례 연구: 회기 진행에 따른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49-66.
- 방은령 (2003). **가정복귀 가출 청소년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 청소년 지도방안 모색**.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배문조, 전귀연 (2002). 청소년의 가출 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개인, 가족, 학교환경,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23-35.
-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경숙 (2008). 가출 청소년의 사회성 기술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임상사회사업연구**, 5(3), 25-48.
- 신강숙 (1999). 인지-행동 집단상담이 가출 경험 여고생의 재가출 충동과 자기 집단 및 비합리적 신각생의 재가출 충동과 자기 집단.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은영 (1998).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모델에 관한 시도적 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창규, 문선화, 전운식 (1995). **청소년과 학교 관리 체제**. 서울: 집문당.
- 엄명용 (1997). 청소년 가출 및 가족기능과 가족체계 유형과의 상호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 133-177.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유성경, 송수민, 이소래 (2000). **청소년의 가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철경, 김성경, 김현주, 박병식, 이봉주 (2005). **청소년 보호 정책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성흠 (2005). **학습자 만족도 확인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반응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이정희 (2000).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 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화, 김경희, 김희영, 정혜경 (2006). 여자 고등학

- 생의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청소년학연구**, 13(3), 161-179.
- 이호준 (2006).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기순 (1998). **집단상담이 가출 경험 학생의 불안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운정 (1997). **여성청소년의 가출태도 및 예방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 권혜진 (2001). 청소년 가출에 관한 예측 모형. **정신간호학회지**, 10(1), 76-86.
- 조규필, 권해수, 김범구, 박가열 (2008). 위기청소년 자립을 위한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 효과 분석: 두드림존 프로그램 참여자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2), 305-331.
- 조정자 (1999). **가출청소년(여)의 재가출예방을 위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학래 (2004). 가출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행정논집**, 31, 171-198.
- 채봉균 (2002). **청소년의 가출의식에 관한 연구 - 경북 포항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은, 김성천 (2006).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시설거주 가출소녀의 자아존중감과 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2), 23-52.
- 한국쉰터협의회 (2010). **청소년쉰터소개**. 전국쉰터링크. <http://www.jikimi.or.kr>. 2011. 8. 4 검색
- 한국여성개발원 (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청소년쉰터협의회 (2002). **전국 가출 청소년 실태조사 및 상담 사례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쉰터협의회.
- 한국청소년쉰터협의회 (2007). **가출 청소년 및 청소년쉰터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쉰터협의회.
- 한국청소년쉰터협의회 (2010). **가출 청소년 및 청소년쉰터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쉰터협의회.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청소년가출의 대처방안: 가출 청소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상철 (2001). 사회적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1-21.
- 한상철 (2008). 청소년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73-298.
- A. R. Roberts (1987) *Runaways and Non-runaways; An Exploratory study of adolescent and parental coping*, The Dorsey Press; Chicago(나동석 · 이용교 역(1991). **가출청소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Balachova, T. N., Bonner, B. L., & Levy, S. (2009). Street children in Russia: steps to pre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8(1), 27-44.
- Barth, R. P. (1986). Running away. In R. P. Barth (Ed.), *Social and cognition trea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ractical strategies for problem behaviors*, 353-394. San Francisco: Jossey-Bass.
- Clark, H. B., Crosland, K. A., Geller, D., Cripe, M., Kenney, T., Neff, B., & Dunlap, G. (2008). A functional approach to reducing runaway behavior and stabilizing placements for adolescents in foster car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8(5), 429-441.
- Fishman, H. C. (1988). The runaway adolescent: A therapy of options. In H. C. Fishman (Ed.), *Treating troubled adolescents: A family therapy approach*, 59-80. New York: Basic Books.
- Janus, M. D., McCormack, A., Burgess, A. W., &

- Hartman, C. (1987). *Adolescent runaways: Causes and consequences*. Lexington, MA: Heath.
- Kammer, P. P., & Schmidt, D. (1987). Counseling runaway adolescents. *The School Counselor*, 35, In M. P. Mirkin & S. L. Koman (Eds.), *Handbook of Adolescent and Family Therapy* (pp 149-154). New York: Gardner.
- Lappin, J., & Covelman, K. W. (1985) Adolescents runaway : A structural family therapy Perspective. In M. P. Mirkin & S. L. Koman (Eds.), *Handbook of Adolescent and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 MacKay, K. A., & Hughes, D. M. (1994). Educating runaway and homeless youths: Perspective of the 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s. *Social Work in Education*, 16(1), 55-63.
- Manov, A., & Lowther, L. (1983). A health care approach for hard-to-reach adolescent runaways.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8, 333-342.
- Morgan, O. J. (1982). Runaways: Jurisdiction, dynamics and treat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8, 121-127.
- Orten, J. D., & Soll, S. K. (1980). Runaway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 treatment typ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1, 249-261.
- Slesnick, N., & Prestopnik, J. L. (2005). Ecologically based family therapy outcome with substance abusing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8, 277-298.
- Slesnick, N., Vasquez, C., & Bittinger, J. (2002). Family functioning, substance use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Hispanic vs. Anglo runaway youth. *Journal of Ethnic Substance Abuse*, 1(4), 83-101.
- 원 고 접 수 일 : 2011. 0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0. 26.
게 재 결 정 일 : 2011. 11. 08.

Development of The Runaway Prevention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Sulim Lee

Open Cyber University

Eun-young Kim

The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Mi-kyoung Song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run-away prevention program for the youth and to test its effectiveness. A need analysis with 884 of 6th graders was conducted to figure out elementary students' needs for this program.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 with runaway adolescents who were staying at a shelter was conducted in order to derive basic components of a run-away prevention program.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the results of need analysis, a short-term runaway prevention program was developed, which could be run in a classroom as a unit. The runaway prevention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covers the following areas;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runaway, ways to manage one's stress, ways to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parents in conflicts, and ways to ask for help. The guidebook for parents and manual book for teacher have been developed. The developed program was tested with 430 of 4th, 5th, 6th graders, and its effectiveness was evaluated using pre-, post- and followup-test along with questionnaire on the participant's perspectiv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tress coping and in thoughts on runaway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developing the runaway prevention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which could be run at a school setting.

Key words: Runaway adolescents, Runaway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Program development

